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9월 17일(일), 11:40	강당
성체분배자회	9월 24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주례 일정

17일(일)	참고(교중 미사 직후)
24일(일)	세례식(교중 미사 중)

구역 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9월 19일(화), 20:00	14구역	강당
9월 26일(화), 20:00	21구역	강당

생활성서사 문서 선교

- 월간「생활성서」와 각종 신앙 서적 홍보를 위하여 가리따스 수녀회에서 본당을 방문합니다.
- 일시 : 2023년 9월 16일(토) ~ 17일(일)
 - 주관사 : 예수님의 가리따스 수녀회의 생활성서사
 - ※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 / 강좌

- 레지오 전단원 2차 교육
 - 대상 : 레지오 단원 및 협조 단원(일반신자 가능)
 - 일시 : 9월 17일(일), 14:00
 - 장소 : 본당 대성전
- ‘2024년 부활’ 세레반 모집
 - 주일반 : 일요일 오전 9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제43기 천주교 생태 영성 학교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 10월 17일(화), 14:00~16:00, 총 4회
- 장소 : 명동 영성센터 B동 201호 강당
- 주제 : 「찬미받으소서」 기본 과정
- 교육비 : 1인당 3만원 www.1005-402-907778.com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접수 마감 : 9월 15일(금)까지
- 신청 방법 : 구글 → <https://zrr.kr/Uomc>
이메일 → ecocatholic@hanmail.net
환경사목위원회 02-727-2283/2278

알림

- 오늘은 헌미헌금 2차 헌금 있습니다.
- 9월 20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웰레미사가 있습니다.
- 다음 주(9월 24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본당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표는 9월 27일(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 사목협의회
 - 일시 : 9월 21일(목), 19시 40분
 - 장소 : 강당

추석 연휴 미사 안내

28일(목)	아침 06:30 ※ 10시/19시 미사는 없습니다.
29일(금, 추석)	아침 06:30, 낮 12:00 (미사 후 음식 나눔)
30일(토)	06:30, 19:00 ※ 16시 유초등부 미사는 없습니다.
10월 1일(일)	06:30, 10:00(중고등부/유초등부), 10:30(교중), 12:00, 19:00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반드시 9월 27일(수)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9/2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4구역	청소	1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9월 6일 ~ 9월 12일)

교무금	6,806,000원
주일헌금	4,747,000원
심진보10만원 이형순 5만원 정철이 5만원	
감사헌금 박혜정10만원 박정순10만원 이화성10만원	
황정애 5만원 익명 5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9/17	이인옥 조홍환 도현만 최상림 이응남 김덕영 정재경		
9/24	권태희 오성환 신종구 유숙종 임종윤 장익근 구민서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9/17	옥윤필 이화봉 손상민 박형순 최영만			
9/24	최석준 옥윤필 박용환 오광운 장인홍			

화답송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 들 환-호 하 며 거-으-두 리 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잔미 받으소서” -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희적

24. 다음으로 온난화는 탄소의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난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조장하여 온난화된 지역의 물과 에너지와 농산물과 같은 필수적인 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극지방과 고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려 매우 위험한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냉동되었던 유기물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욱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열대림의 감소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오염으로 해양이 빠르게 산성화되어서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는 예사롭지 않은 기후 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해안이나 그 근접 지역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거대 도시가 해안 지역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상승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5.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수십 년 안에 아마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이들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는 자연 보호 지역과, 농업과 어업과 삼림업과 같은 생태계에 관련된 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거나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 복지나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이 이주하게 되면 가난한 이들 또한 생계에 타격을 받아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연 훼손으로 악화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포기한 삶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관련된 이 비극에 대한 우리의 부실한 대응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인,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